



2022년 2월 24일
가톨릭 사이타마교구 교구장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

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하여(제 22 차)

일본정부에 의한 「만연방지등 중점조치」는 3월 6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만, 코로나 19의 현상황에 근거하여, 사이타마 교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일의 「공개미사」는 3월 6일(일, 사순제 1주일) 부터 재개 합니다.
또한, 지역의 상황에 의해 미사재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교에게 상담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주일미사 참례의무를 면제 합니다.

그리고, 3월 2일(수)의 「재의 수요일」 미사는, 3 밀을 피하는 것에 유의하신다면 미사를 거행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재의 수요일 이외의 날에 재를 받기를 희망하는 이에게는, 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성당에서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임사제에게 문의하십시오.